Maison

2011 NOVEMBER
WWW.MAISONKOREA.COM

메종 marie cla

JYJ 재중의 스타일 있는 집

숨은 공간의 쏠쏠한 활용법

알랭 드 보통을 만나다

17명의 셰프가 밝히는 자신만의 소울 푸드

2011 〈메종 & 오브제〉 리포트

도자기 축제로 떠나는 날

절충주의의 매력

Eclectic Style

17 Special COLLECTORS

NOW trend

1 에밀리 파이프의 패브릭 조각 '파리 뉴욕'.
2 '빅 리프'의 컨셉 스케치.
3,5,6 마할리 크라세가 노두스와 협업해 만든 '빅 리프' 러그.
4 프레데릭 모렐의 빈티지 패브릭을 이용한 사슴 모양 아트피스.
7 언신 프로덕츠Unseen Products에서 소개한 바위 느낌의 쿠션.

Sculptural Fabric

이제까지 패브릭은 가구 집기와 커버링을 위한 좋은 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소재 자체가 말랑하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작업을 선보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단점을 극복하고 입체적인 패브릭 아트피스를 선보인 작가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에 박수와 갈채를! 밀라노의 스파지오 로산나 올란디는 희귀하고 값진 갖가지 패턴의 빈티지 패브릭을 패치워크해 만든 프레데릭 모렐의 사슴 모양의 아트피스 '보헤미안 그린지'를 전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디자이너 마할리 크라세는 최근 노두스(Nodus)와 협업해 손으로 매듭을 지은 울 소재의 러그 '빅 리프'를 발표했다. 매듭을 먹에 걸었을 때 하나의 설치 작업 같은 느낌까지 주는 이 러그는 뉴질랜드산 울과 히말라야산 울을 섞은 것으로 네팔에서 생산되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12개만 특별 생산한다. 프랑스 작가 에밀리 파이프Emilie Faïf는 솜을 채워 만든 패브릭 집과 빌딩, 구조물을 연결해 '파리 뉴욕' 설치 작업을 완성했다.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이 담긴 패브릭 조각,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녀는 최근 츠모리 치사토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옷과 패브릭 조각의 유기적인 인스톨레이션을 보여준 바 있다. 에디터 정수현